가정정보화가 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 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이 현 아(서울대 박사과정, 상명대 강사)

Ⅰ. 서 론

정보의 기여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를 우리는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라고 부른다. 정보사회화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던 것과 비교할 만큼 큰 문명사적 대 전환으로 규정할 정도로(Toffler, 1980), 오늘날 정보화사회는 단순한 유행사조가 아닌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시대조류로 인식된다. 현재 '정보화'는 국내외적으로 최우선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이 90년대 중반이후 공공·행정분야와 산업·경제분야를 넘어 가정·생활 분야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최대시장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정보통신기업들이 가정의 정보화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선진국 정부들은 정보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보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과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적인 정책적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의 정보화 촉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최두진, 1998).

정보사회는 사회의 각 부문이 상호연계된 네트워크사회이므로, 공공, 산업부분의 정보화와 가정 부문의 정보화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사회전체의 정보화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다. 예컨대 아무리 행정정보화가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는 최종 이용자인 가정의 정보화수준이 낮으면 그 효용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도 가정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우리사회 정보화의 성패는 가정의 정보화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정정보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이나 산업의 정보화가 정보화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개개인이 정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의 정보화는 성숙된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홈네트워크(Home Network)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가정의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가정과

가정, 가정과 기업, 가정과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된다. 가정의 정보화가 이 정도 단계에 이르게 되면, 가정은 정보사회의 기본 세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전의 산업사회에서 가정이 '가족의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였는데 반해, 정보사회에서 가정은 정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정보 항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2000년 6월 현재 1,575만명에 도달하고(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a), 또 가정에서의 이용률이 42.2%(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b)에 도달하는 등 그야말로 "인터넷의 생활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최근 정부주도로 인터넷PC[1]가 저가로 보급되고, 또 주부인터넷교육[2]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정에서의 인터넷사용의 증가는 곧 가정의 정보화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인터넷사용증가로 가정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개인과 가정의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가정의 정보화로 인해 가정생활이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보화로 나타나는 사회변화의 일환으로 가정정보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보화에 대한 논의에서 일찍이 가정은 정보화의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고, 가정의 정보화는 여성 특히 전업주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이 통념이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오락 등 점점 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토플러(Toffler)의 "전자주택(electronic cottage)"이라는 비유가 시사하듯이 산업혁명 이전의 가내수공업(cottage industry) 시대에 모든 가정에서 물레를 사용했던 것처럼, 정보화시대에는 가정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상생활과 생계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가정을 사회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를 분권화하는 거대한 사회혁명으로 귀결된다(Toffler, 1980). 이 과정에서 주부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주부들이 담당하는 가사노동은 실제로 정보화의 논의에서 도외시되어 왔다. 현재 가사노동은 정보기술의 도입에서 가장 뒤떨어진 부문에 속한다. "전자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는 주로 교육, 의료, 통신, 직업 및 경제활

1) 정보통신부는 인터넷PC(1999년 10월부터 판매), 노트북 인터넷PC(2000년 3월부터 판매) 보급사업을 시행함으로써, PC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PC 구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 정보통신부는 2000년 3월부터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교육희망자가 폭증함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2백만명으로 늘리고 교육기관도 769개에서 1,057개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동에 집중되어 왔다. 즉, 이전에 집밖에서만 가능했지만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 이른바 '공적 영역'의 활동은 정보화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된 반면, 여성의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는 가사노동의 정보화는 사소하거나 거의 낭비에 가까운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윤정로, 1999).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 관련 조사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나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국민들의 정보화실태와 정보화인식 조사(한국정보문화센타, 1998, 1999)이고 다른 하나는 KNP(1999, 2000)나 인터넷메트릭스(1999) 등과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사용자 조사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국민들의 정보화수준이 어느정도 진전되어 나가는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만, 정보화로 인한 가정생활의 변화된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후자의 경우 상업적 측면에서 인터넷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거나 신규사업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 인터넷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질과 가족원의 복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조사이외에 정보화와 삶의 질(조명환 외, 1993, 1994; 한국전산원, 1996) 또는 '정보화와 가정', '정보화와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조형, 1992; 이재경, 1992)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지금과 같이 정보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나 추측이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화의 요충지로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인터넷이 생활화됨에 따라 가정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의 차원에서 정보화의 실태나 영향을 논의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정보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인터넷사용으로 나타나는 가정생활의 변화를 가정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이루어진 국내외의 가정정보화 관련 연구와 조사 -단행본, 학계와 연구소의 보고서 및 논문, 정부의 연구자료, 인터넷 자료- 를 토대로 가정정보화의 실태와 가정정보화가 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본론에서 살펴본 가정정보화의 실태와 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기반하여 가정정보화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정보화수준

1. 가정정보화의 지표

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정보화의 수준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가정정보화의 지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터넷사용의 수준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정보화의 지표는 개별 가정의 정보화 실태를 나타낸 지표로서, 그 내용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경영에 따른 정보화지표의 상황을 검토하는데 중요하다. 일본 우정성에서 발표한 통신백서(1997)에 나타난 가정정보화 지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가정정보화의 지표

정보장치지표	▶ 가정에서 정보입수에 사용되는 기기의 보유율 1. 정보통신기기의 세대당 보유율 2.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세대당 가입율
정보지출지표	▶ 가계소비지출에서 정보통신관련 지출 1. 정보통신 조작기기의 구입액 2. 통신네트워크의 가입, 계속료 3. 정보 소프트웨어의 구입액

출처: 日本郵政省(1997), 通信白書

여기서 정보장비지표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정보를 합리적으로 획득, 소비하기 위한 재화(기기)나 서비스(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고, 정보지출지표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정보통신관련 기기의 구입비용이나 사용요금 등 가입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는 생활수단 및 금전이라고 하는 자원에서 가정의 정보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가정생활 경영에 따른 정보화 지표를 양적지표, 질적지표, 균형지표, 선택성지표와 효율성지표로 파악할 수 있다(村尾勇之, 1997). 양적지표는 정보통신에 간여하는 제 서비스의 양, 정보통신에 소비하는 금전의 양, 정보통신을 위한 시간의 양으로 측정되며, 질적 지표는 소비된 정보의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확성이나 중립성을 그 판단 기준으로 한다. 균형지표는 획득, 소비된 정보의 내용이 가족원의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인 생활에 얼마나 균형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선택성지표는 사회적

으로 제공된 정보 중에서 가족의 생활경영상 획득된 정보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효율성지표는 획득한 정보 중에서 가치 있게 사용한 정보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산원(1996)에서는 개인수준의 정보화를 정보설비 보유수준, 정보이용수준 및 정보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정보환경과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등으로 개념화하였고, 한국정보문화센터(1999)의 연구에서는 정보통신매체의 보급, 정보통신매체의 이용, 정보화 인식, 정보화 교육 등으로 정보화실태를 조사하였다. 한편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b)에서는 인터넷 이용기간, 이용빈도, 주당이용시간, 최근 이용시기, 주 이용시간대, 주 이용장소, 접속방식, 이용계기, 이용목적, 개인 홈페이지 소유여부, 전자메일계정 소유여부, 전자상거래 이용여부, 사이버증권 이용여부, 향후 이용의사 등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정보화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정보화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인터넷사용을 정보화지표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인터넷이 첨단 정보화사회의 중심 축이 되었으며, 가정정보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정보검색 수단이 아니라 전화, 팩스, 방송청취, 광고, 홈쇼핑, 금융거래, 주문영화시청 등 거의 모든 정보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능 국제통신망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구심점으로 하여 종합정보통신이 새롭게 정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인터넷관련 설비수준과 인터넷관련 이용수준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표 2〉 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정보화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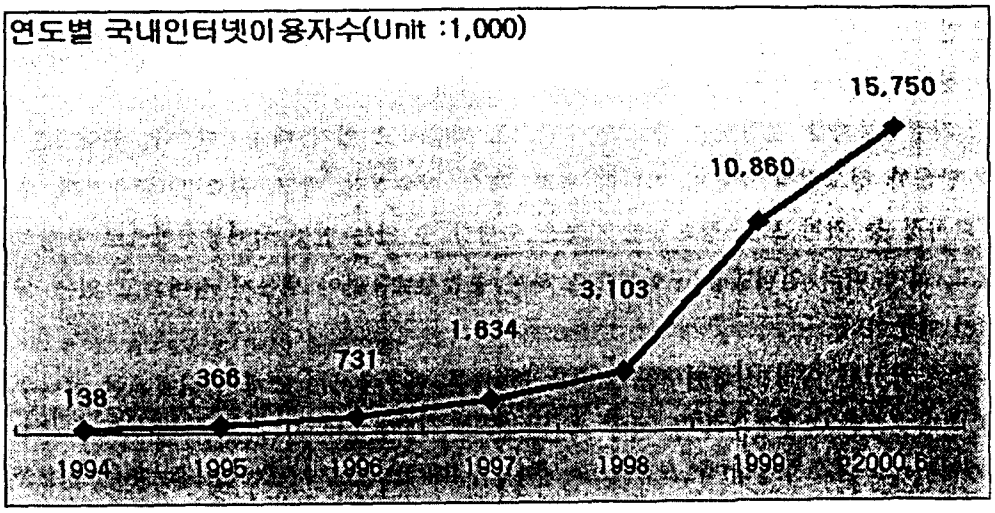
인터넷 설비수준	인터넷 이용수준
- 컴퓨터 보급률 및 컴퓨터기종 - 통신과 인터넷 접속 수준	- 인터넷 이용경력 - 인터넷 이용빈도 및 시간 - 인터넷 이용비용 - 인터넷 이용용도

2. 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정보화 실태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3]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증가하고, 특히 1998년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국내 인터넷이용자수가 급증한 것은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기술적 측면, 정책적 측면, 비즈니스 측면에서 인터넷 이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c).

2000년 6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이용자수는 1,575만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약 3명중 1명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a). 이와 동시에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률이 42.2%(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b)에 도달하는 등 그야말로 "인터넷의 생활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림 1〉 연도별 국내인터넷이용자수의 증가추이



Year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6
Users	138	366	731	1,634	3,103	10,860	15,750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http://stat.nic.or.kr/public_html/iuser.html)

3) 인터넷이용자수는 산출하는 기관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령, 접속방법, 기간 등 인터넷이용자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실제 그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정의는 "만 7세 이상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이는 초등학교부터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인터넷이용자를 만 7세 이상으로 정의한 것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는 년 4회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인터넷이용자수를 산출, 추정하고 있다.

1) 인터넷관련 설비수준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설비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의 보유와 인터넷통신망의 연결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가정내 컴퓨터 보급률과 보유컴퓨터의 기종, 그리고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망의 보급률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는 90년 이후 일반 국민들의 정보화인식과 정보생활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중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1999)에서 우선 가정의 컴퓨터보급률은 90년도 약 10%수준에서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50%정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두 가구당 한 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가정의 컴퓨터 보급률 추이

	'90년도	'94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컴퓨터 보급률	11.0%	20.7%	43.2%	44.5%	51.8%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1999).
국민생활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같은 조사에서 1999년 현재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기종은 펜티엄급(61.9%)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도 펜티엄프로 이상이 12.7%, 486급이 10.5%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정에서 고급기종의 컴퓨터 이용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내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의 보급률은 각각 16.1%와 12.9%로 나타났고, 또 컴퓨터를 보유한 가정의 31%가 컴퓨터 통신을, 그리고 25%가 인터넷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퓨터통신 이용자의 비율은 17.8%이었으며, 컴퓨터 이용자의 약 절반정도인 47.1%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전체 15.2%이었으며, 컴퓨터 이용자의 40.2%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정내 컴퓨터통신과 인터넷보급률 및 이용률

	보급률	이용률
컴퓨터통신	16.1%(31.0%)	17.8%(47.1%)
인터넷	12.9%(25.0%)	15.2%(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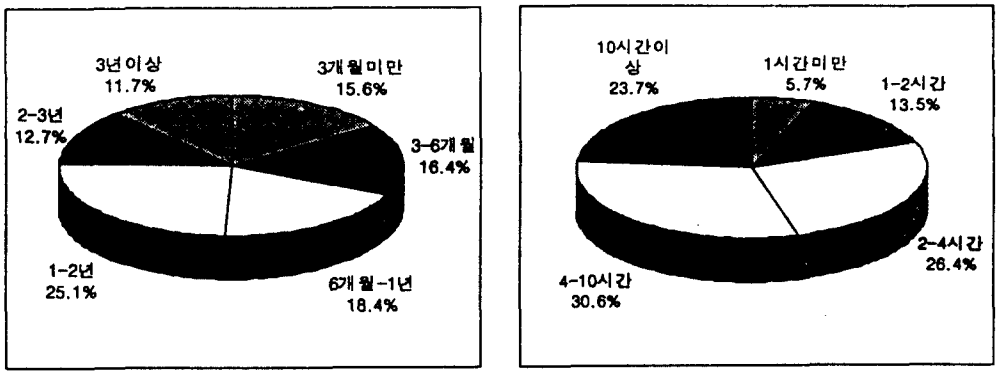
* 주: ( )안은 컴퓨터이용자 중 비율임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1999),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2) 인터넷 관련 이용수준

인터넷 관련 이용수준은 인터넷이용경력, 이용빈도 및 시간, 이용장소, 이용비용, 이용용도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2000년도 상반기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터넷이용기간은 1~2년이 25.1%로 가장 많았고, 2년 이상인 이용자도 24.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75.4%)가 2년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인터넷 이용기간과 주당이용시간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년도 상반기 설문조사 실시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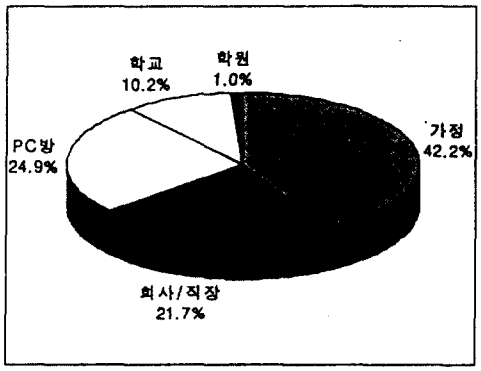
한편 인터넷 이용빈도는 일주일에 2-3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41.4%로 가장 많았고, 매일 이용한다는 이용자도 30.8%로 상당히 많았다. 특히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의 하루 평균이용시간은 2.1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당 이용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4~10시간 이용한다는 사람이 3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인터넷매니아도 23.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99년 10월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주당 인터넷 이용시간이 평균 2.2시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인터넷의 주 이용장소로는 가정(42.2%), PC방(24.9%), 직장(21.7%), 학교(17.7%)의 순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접속방식은 PC통신/전화접속이 6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용선(52.3%)을 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이용계기는 호기심(24.2%), 학교과제(23.0%), 업무목적(19.4%), 생활정보(15.2%)의 순으로 나타났고, 인터넷의 이용목적은 대부분 자료검색수단으로 이용(61.9%)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게임/오락, 채팅, 이 메일 전송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이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사는 그리 많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없으나, 한국전산원(1999)에서 발간한 「정보화통계집」의 가정부문 정보화투자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가정부문의 정보화투자는 정보설비투자, 정보이용투자, 인력부문투자를 합한 것[4]으로 전체 12,239,169만원이며, 이는 연간소득대비 4.6%에 해당하는 투자액이다. 그 외 PC통신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한국정보문화센터, 1998)에서는 월평균 이용요금이 1-2만원인 경우가 47.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만원 미만인 경우가 34.5%, 2만원이상인 경우가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대부분 월평균 2만원 미만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터넷전용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이전의 실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이용용도를 살펴보면, 우선 컴퓨터 통신의 이용용도로는 여가시간의 활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취미관련 정보의 획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이용용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업이나 연구를 위한 정보의 취득이며, 그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취미에 관한 정보취득에 있다. 반면 채팅이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등의 목적으로는 많이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인터넷의 주 이용목적은 정보획득에 있는 것으로서 점차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정보생활의 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9).

〈그림 3〉 인터넷 주 이용장소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년도 상반기 설문조사 실시결과

4) 정보설비투자는 H/W, S/W 구입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투자이고, 정보이용투자는 유무선전화, 인터넷, PC통신 등 통신회선사용료 및 정보통신 이용료를 포함하는 것이며, 인력부문투자는 교육비를 말한다.

〈표 5〉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이용용도(1순위)

	컴퓨터통신	인터넷
아는 사람과 의견이나 메시지교환	14.2	8.8
여가시간 활용	26.2	19.9
새로운 사람 사귀기	4.1	2.2
일상생활, 취미에 관한 정보획득	18.3	21.9
업무상 의견, 메시지, 문서교환	12.3	13.3
업무나 사업, 투자, 취업 정보획득	7.5	9.2
학업, 연구에 필요한 정보획득	16.6	23.9
예약/홈뱅킹 등의 거래서비스	0.7	0.4

자료: 한국정보문화센터(1999),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한편 인터넷메트릭스에서 실시한 제2차 인터넷 센서스조사(1999)에서는 15세~49세의 인구 21.8%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20대~30대 초반이 58.6%로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대학생, 사무직이 각각 26.6%, 18.7%로 많은데, 고교생과 주부 이용자의 구성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터넷이용시간은 주 10.1시간(하루 1시간 27분)으로 이전보다 늘어났고,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는 학술정보〉오락, 게임〉업무관련〉뉴스〉동호회, 채팅〉스포츠, 연예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터넷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KNP(2000)의 조사에서는 인터넷사용시간이 1999년도 조사에 비해 증가하여 주당 10시간 이상인 응답자가 44.6%나 되었고, 인터넷 사용경험도 2년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46.2%로 상당히 많아졌다. 또한 인터넷의 주사용 서비스가 전자메일, 검색, 뉴스이외에도 학습/교육, 음악, 쇼핑, 동호회, 무료전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이용률(24%)이 크게 확산되고, 자택에서의 이용률도 42.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택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날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여러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정의 정보화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구당 한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그 중 반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정에서의 인터넷이용률이 40%를 넘는 등 가정의 정보화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매일 이용하는 이용자가 약 1/3정도 되며 이들의 평균이용시간이 2시간이 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

의 이용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의 이용용도는 학업이나 연구, 일상생활이나 취미, 각종 뉴스 등의 정보취득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터넷이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정보생활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이용자의 구성도 예전과 달리 대학생이나 사무직의 비중 뿐 아니라 주부의 비중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정보화 실태를 살펴볼 때, '가정의 정보화' 또는 '생활의 정보화', '인터넷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함을 감지할 수 있다.

Ⅲ. 가정정보화가 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본 장에서는 가정정보화가 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사회론자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견해를 통해 가정정보화의 영향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가족생태학이론(family ecological system theory)에 의거하여 가족과 기술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가정정보화의 영향을 역동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계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가정정보화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정보사회론자들의 기본적 견해

정보사회의 전개는 먼저 컴퓨터와 뉴미디어, 통신기술을 포함하는 정보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에 의해 촉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의 과정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가치관, 개인의 일상생활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정보의 사회화'와 '사회의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많은 학자들이 정보사회화를 하나의 문명사적인 대전환이라고 보고 정보사회의 사회구조가 산업사회의 사회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Toffler의 제3물결론, Naisbitt 메가트랜드론, Bell의 후기산업화론이 이러한 입장의 대표라 볼 수 있다.

Toffler(1980)는 정보사회화를 농업사회의 문명이 산업사회의 문명으로 전화되었던 것에 비교할 만한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정보사회의 조직원리가 산업사회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비표준화, 또는 탈대중화(demassification), 분권화(decentralization), 분산화(deconcentration), 소규모화(minimization) 등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간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권력이동'(1990)이라는 책에서 권력의 원천이 농업사회의 폭력(군사력)과 산업사회의 돈(부)으로부터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정보)로 이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Naisbitt(1982)는 제반 생활 환경 및 의식적 성향까지 포함한 폭넓은 시각에서 첨단 정보사회의 미래상의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제시하였다. ①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변화 ②기술적 측면에서 경성적 기술에서 하이테크·하이터치기술로, 정치적 측면에서 ③중앙집권에서 분권화로, ④의회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변화한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조직문화와 생활양식에 있어 ⑤위계적인 피라미드형 구조에서 네트워크형 관계구조로, ⑥공업중심 사회에서 전원적 문화 레저사회로, ⑦국가경제에서 세계경제로 ⑧양자택일에서 다중선택으로의 변화한다고 보았다.

Bell(1987)이 제시한 후기 산업사회 특성은 서비스경제의 창출, 전문직 및 기능직 계층의 부각, 사회에서의 혁신과 정책형성의 근거로서 이론적 지식의 중심적 역할, 미래지향적인 기술성장의 가능성, 의사결정에서의 새로운 지적기술(intellectual technology)로써 관리과학 및 체제분석기술의 창출 등이다. 그리고 통신망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활동지역의 분산화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무대와 영역이 확충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Bell은 지적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기술로 인해 '정보와 지식'이 상품생산이나 지적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상호간에 통신을 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의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탈산업사회의 틀 속에서 정보사회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정보사회의 사회조직 원리가 종래의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산업 중심으로, 표준화에서 다원화로, 집중화에서 분산화로, 집권화에서 분산화로, 거대화에서 소규모화로, 위계적 조직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전환되어 간다면, 분명히 정보사회의 사회구조적 성격은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그와 같은 구조적 전환은 더 나아가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도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정보사회를 향한 사회변동은 하나의 거시적인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임회섭, 1995).

한편 정보사회가 종래의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새로운 문명을 대두시킨다는 주장과 달리 산업사회의 연속선상에서 정보사회를 이해하려는 접근도 있다. Giddens(1990)는 이른바 근대성의 기본원리로 시간-공간의 분리와 장소귀속성 탈피를 들고, 그와 같은 원리는 탈근대의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다시말해, 현대산업사회의 기본적 사회조직의 원리를 장소귀속성 탈피로 보는 관점에서 정보사회화가 산업사회의 조직원리를 더욱 촉진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산업사회가 지니고 있는 기회와 위험을 더욱 확대해 가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표 7〉 정보화의 긍정적·부정적 결과

주제영역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
산업경제적 측면	생산성향상 합리화 노동의 질적 향상 소비자 중심의 경제 새로운 직업의 창출 창의성 자율성의 중시 친환경적 기술	불확실성의 증대 불안정성의 심화 대량실업 소비주의의 확산 수많은 직업의 소멸 스트레스의 심화 새로운 유형의 환경파괴
정치권력적 측면	참여의 확대 자유의 확대 수직적 위계질서의 파괴 전자민주주의의 확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통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권력의 강화 지적 엘리트의 영향력 강화
사회문화적 측면	개인의 자유발전 사회적 협력의 증대 의사소통적인 사회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 지적 수준의 상승 정보의 보편적 이용	코드화된 인간 개인의 고립화 생활의 탈인간화 정보의 홍수 문화의 향락화 세대/계층간의 불평등 심화

자료: 김문조(1999), 과학기술과 한국사회의 미래

Schiller(1984)는 정보사회는 자본주의사회의 작동원리가 정보와 정보기술을 매개로 현상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정보사회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정보사회론자들이 정보화에 대해 가지는 견해는 크게 두가지 입장-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대별된다. 지금까지 거론된 정보화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을 다음 〈표 7〉과 같이 산업경제적 측면, 정치권력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가정정보화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

정보화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을 토대로 최동수(1999)는 개인과 가정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의 영향으로는 ①가사노동의 경감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②개인행동의 자립성 촉진, ③장소의 극복, ④홈쇼핑과 홈뱅킹, ⑤원격진단과 재택진료, ⑥직장과 가정의 융합(재택근무), ⑦원격교육과 재택학습, ⑧고도학습사회의 출현, ⑨여성의 활동영역증대 등이 나타난다. 반면 부정적 측면의 영향으로는 ①정보소유의 불균질화, ②정보의 폐소공포증과 소외감, ③거품정보사회의 출현, ④여성의 새로운 스트레스 발생 등이 있다고 한다.

한편 宮田加久子(1994)는 정보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생활의 변화를 다음

〈표 8〉과 같이 추론하고 있다. 그는 전자미디어가 이용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체적 행동선택, 탈시간화, 탈거리화, 노동절감, 네트워크의존, 개별화의 6가지로 제시하였다.

〈표 8〉 가정정보화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정생활의 변화	간접적 변화
주체적인 행동의 선택	능동적 행동 기기에의 과도한 의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탈시간화 탈거리화 노동경감	가사노동시간의 단축	성역할의식의 변화 여가시간의 증가 여성의 취업, 노동시간의 증가
네트워크 의존	외부와의 상호작용 유지	가족의 확대
개별화	가족결속의 약화 가정내 고립화	가족의식의 변화

자료: 宮田加久子(1994), '電子メディア社會'

우선 가정의 정보화가 진전되면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반면에 기계에만 맡겨버린다든지 컴퓨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또 이 기술의 응용을 통해 쇼핑이나 은행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이 절약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절약된 시간은 한편으로는 여가시간의 증대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간의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사회,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의식도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정의 정보화로 네트워크에 의존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와같은 정보통신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외부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촉진되는 반면, 가정내의 고립화, 개인화 및 가족결속의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

2. 가족생태학 이론에 근거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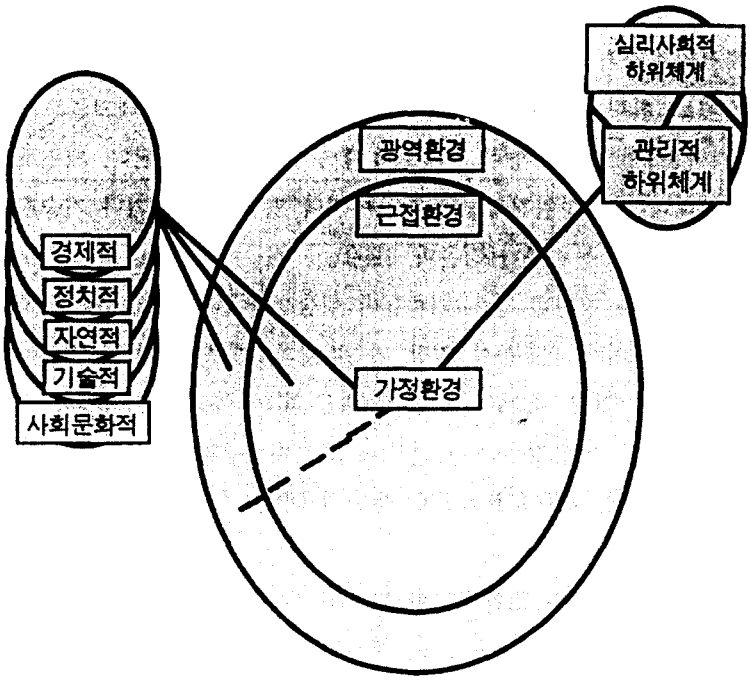
가족생태학 이론에 의해 가정정보화를 이해하는 것은 가정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수용되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내 역동적

상호작용 생활을 파악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가족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적응해나가는 역동적인 체계이다. 가족을 둘러싼 환경은 가족과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가정환경, 근접환경과 광역환경으로 구분되며, 모든 수준의 환경에서 기술적 차원의 환경이 존재한다(그림 4).

관리적 의미에서 기술의 기본적 역할은 지식, 물질, 에너지가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도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과학과 기술은 상품 및 서비스의 발달과 관련이 있으나 관리는 그것의 신중한 선택과 사용을 증진시킨다. 기술의 변화는 개인복지 및 사회복지와 관련되며 관리의 중요성을 증가시킨다(Deacon & Firebaugh,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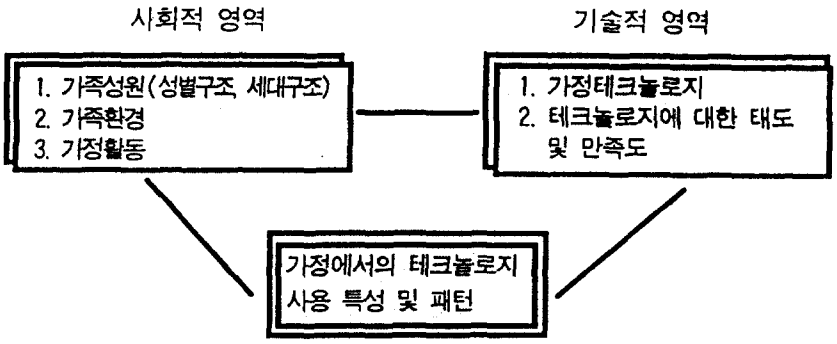
〈그림 4〉 가족체계와 그 환경



자료 : Gross, Crandall, & Knoll(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가족의 인간관계 및 일상활동이라는 사회적 영역과 가정기기라는 기술적 영역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특정 생활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들의 생활상을 가족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가족의 테크놀로지 사용개념도



출처: 김은미(1999), '가정정보화와 사이버가족'에서 인용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가족의 일상적 활동은 기술적 영역에 속하는 가정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또 역으로 기술 발전이 가족생활의 모습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정에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사용패턴이 생겨나고 가족은 새로운 균형적 체계로서 통합성을 지니게 된다. 재편된 가족집단의 균형성은 가족형태나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방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술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피드백과정을 동반한다(김은미, 1999).

가정의 정보화가 보다 진전될 경우,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테크놀로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되는가를 가사, 여가, 외부통신, 직장, 가족발달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다음 〈표 9〉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족활동내용 및 주사용자는 가정의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며, 테크놀로지는 가정의 기술적 영역에 속한다. 이와 같이 가정정보화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를 홈쇼핑, 재택의료, 재택근무, 재택학습 등 몇가지 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홈쇼핑의 확산에 따라 쇼핑시간이 감소되고, 이로써 개인이나 가족을 위한 자유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물건구매나 상품종류선택을 위해 가족원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게되면서 가족구성원간의 결속력이 커질 수도 있다.

둘째, 재택의료시스템을 통하여 장기간 치료나 간호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주고받으면서 위급시에는 즉각적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유용한 것이기는 하나 가정내에서 간호라는 새로운 역할부담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표 9〉 가정정보화에 따른 가족과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 영역

	내 용	가 족 활 동	주사용자	테크놀로지
가사 관리	식생활	식단 및 요리정보, 식사준비, 설거지, 식료품 구매	주부	멀티미디어, 통신컴퓨터 부엌 백색가전, 자동차
	소비	홈쇼핑, 택배서비스	부부	전화,온라인서비스, TV, 신용카드, 전자지불
	재정관리	홈뱅킹 (가족예산, 세금관리)	부부	데이터베이스, 쌍방향기술, 온라인서비스
	의료/보건	원격진단, 의료기록열람, 건강관리정보	전가족	데이터베이스, 쌍방향기술
여가/ 정서	가족여가/ 오락	TV시청, 영화, 게임, 여행	전가족	멀티미디어, TV, VCR,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전화, 스테레오, 가상현실
	생활정보취득	뉴스정보, 독서정보, 전자게시판	성인	인터넷, 온라인서비스, 쌍방향기술
	가족 커뮤니케이션	가정내 정보공유, 사이버동거가족, 편지교환, 가족간 정서교환	전가족	메일, 전화, 팩스, 인터넷, 쌍방향기술
외부 통신	행정서비스	온라인증명서발급, 전자투표	성인	팩스, 쌍방향기술
직장	전자통신근무 재택근무	소호, 문서작성 등 직업관련 활동	성인	팩스, 전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자동차
가족 복지	교육, 학습	자녀교육, 성인재택학습, 전자도서관, 사이버대학	전가족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 TV, VCR, 쌍방향기술
	생활유지, 관리활동	에너지원격제어, 자동감지 공조, 전자보안, 원격감시	주로 부부	스마트홈, 가정로봇, 가정정보화시스템

출처: 김은미(1999), '가정정보화와 사이버가족'에서 인용

셋째,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가족원들의 중심적 생활의 장이 가정이 되며, 따라서 가족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물리적·심리적 공간확보의 문제가 제기되며, 근무시간과 여가시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가정내 역할분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따른다.

넷째, 재택학습으로 쌍방향 멀티미디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개별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고, 사교육비고 감소되며, 또한 네트워크에 의해 다양한 문화간 교류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까지 학교에서 전담하였던 교육의 책임이 가정의 책임으로 이전되어 부모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는 점과 재택학습으로 자녀들이 또래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생태학 이론에 의해 가정정보화를 이해하는 것은 가정내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수용되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가족내 역동적 상호작용 생활을 파악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3. 체계적 접근법에 의한 가정정보화의 영향 분석

본 절에서는 체계적 접근법(systems approach)에 근거하여 가정정보화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체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가족의 하위체계는 기능에 따라 심리사회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Gross, Crandall & Knoll, 1980), 또는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Deacon & Firebaugh, 1988)로 구성된다. 학자들에 따라 하위체계의 명칭은 다르지만, 그 구분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두 종류의 활동군 -표현적 활동, 도구적 활동- 에 근거한 것이다.

심리사회적 하위체계 또는 인적 하위체계는 표현적 기능을,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는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라 할 수 있다. 표현적 기능은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발달하는 기능으로, 가족간의 관계나 역할, 그리고 가족문화 및 가치관을 통해서 나타난다. 한편 도구적 기능은 가족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으로, 시간이나 화폐와 같은 자원의 관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체계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가정생활을 두가지 하위체계-인적 하위체계, 관리적 하위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 하위체계의 측면에서는 가족관계나 역할의 변화를,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의 측면에서는 시간관리와 재정관리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표 10〉 체계적 접근법에 의한 가정정보화의 영향 분석

하위체계	가정생활의 제 측면	내 용
관리적 하위체계	시간관리	- 시간배분의 변화 - 혼자 지내는 시간과 vs 가족과 지내는 시간
	재정관리	- 가계소비지출의 변화 - 재정관리행동의 변화
인적 하위체계	가족관계 및 역할	- 가족원간 의사소통의 변화 - 가정내 권력구조의 변화, - 가정내 성역할관계의 변화

1) 관리적 하위체계의 측면

(1) 시간관리의 변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에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자원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방식과 내용은 노동방식, 생활수단의 양과 질,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의 양과 질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 태도, 의식, 선호 등의 개인 의식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김외숙 외, 2000). 즉, 가정의 정보화로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동시에 가족원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그들의 생활시간도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실증적인 연구에서 생활시간배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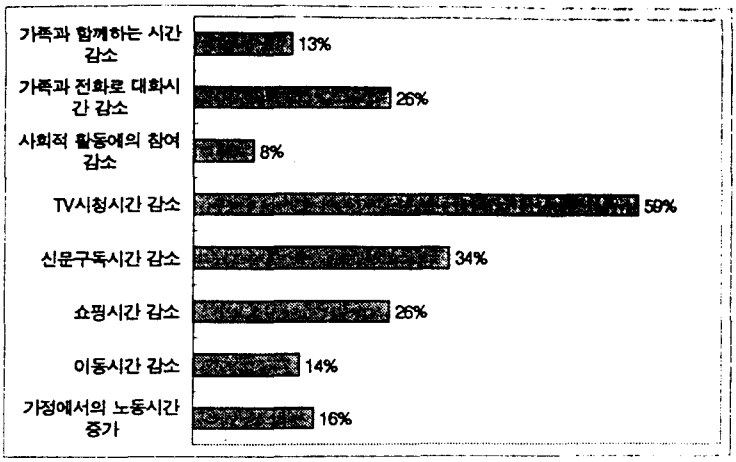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정보화실태조사(1999)에서는 컴퓨터이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사용차원에서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컴퓨터이용으로 인해 TV시청시간이나 수면시간 등은 줄어드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라디오 청취시간이나 신문구독시간, 그리고 취미활동 등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부시간이나 업무시간 등은 아직까지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공부나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체나 보완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박부진 · 이해영(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이용으로 혼자서 컴퓨터를 이용시간이 늘고(80.9%), TV시청시간이 줄었고(66%),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39.5%)고 하였다.

미국 Carnergie Mellon 대학의 Kraut 등(1998)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혼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 Stanford 대학의 계량사회학연구소(SIQSS)의 Norman & Lutz(2000)가 2,689가구의 4,1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사용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관계의 감소나 시간사용의 변화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쓰는 평균적 사용자의 13%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26%는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로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고, 8%는 사회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활동이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평균적 인터넷사용자의 34%는 신문 읽는 시간이 줄었고, 59%는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줄었다고 하는 등 전통적 매체에 소비하는 시간이 인터넷의 사용으로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6%는 상점에서의 쇼핑시간이 그리고 14%는 이동시간도 줄었다고 하였고, 16%는 가정에서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인터넷의 사용이 가정에서의 시간사용 행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의 정보화에 의한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일치된 결과가 없이 엇갈리고 있다. 즉, 정보화는 가사노동의 편리성을 증대시켜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보화로 새로운 가사노동이 출현됨으로써 오히려 가사노동 시간

〈그림 6〉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시간사용의 변화



자료: SIQSS(2000), Internet and Society

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김성희(1996)는 현대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생산된 가정 기기가 가정에 도입됨으로 해서 가사노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정 기기가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가사노동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기술결정론 (technological determinism)적 시각을 지지한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실제 가정 기기가 가사노동시간을 절감하는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가정기기의 활용으로 가사노동의 시간과 노고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생활표준의 향상과 가족의 욕구증대로 가사노동의 양과 빈도가 늘어났고, 가정기기와 관련된 새로운 가사노동이 생겨나 .

〈표 11〉 컴퓨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내용 및 노동시간의 변화

	줄어들 일	늘어날 일
정규적인 일	은행업무/각종결제	
비정규적인 일	관공서 민원업무 재산증식활동 우편물관리/보관 교육/육아정보수집	기기사용/운용방법 학습 금융거래 생활정보수집/분석/정리
일상적인 일	장보기 조리/설거지/세탁/청소 가족간의 대화 친지방문 자녀통학시 동반	사이버쇼핑 가전제품의 프로그래밍 가족원간 정보교환 통신을 이용한 자녀교육 컴퓨터가계부작성 쓰레기 분리, 재생처리

자료: 공선진 · 강선미(1996), 정보사회와 여성의 생활세계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크게 줄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은행업무, 쇼핑시간 등은 줄어든 반면,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자녀교육, 각종 생활정보수집, 컴퓨터가계부정리, 컴퓨터 쇼핑 등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11)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정보화는 가족원들의 시간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과 같은 생리적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제약 하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사용시간의 증가는 우선적으로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즉, 컴퓨터나 인터넷사용시간은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과 같은 생리적 시간과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TV시청이나 라디오청취, 신문구독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 소비하는 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관련 매체가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기존의 매체를 대신하게 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바와 달리 가사노동과 관련된 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다. 물론 은행업무, 쇼핑시간, 이동시간 등의 가사노동시간은 가정내에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서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가사노동 -각종 생활정보탐색시간, 사이버 자녀교육 등-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가정정보화가 양적인 차원에서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는데 기여하였다기보다는, 질적인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거나, 가사노동의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새로운 가사노동 영역을 창출하는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정의 정보화로 혼자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원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가족간 대화의 시간이나 가족단란의 시간, 가족이 함께 TV를 보는 시간 등 다른 가족원과 함께 하는 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연구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처럼 가정의 정보화는 개개인의 시간사용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시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의 정보화로 보다

다양한 활동영역과 욕구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으로 제약되어 있는 하루의 시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계획과 수행이라는 관리적 관점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2) 재정관리의 변화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제 필수적인 생활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소득이라는 예산제약하에서 이와 같이 정보관련 지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다른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고, 결국 가계소비지출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보문화센터(1999)의 조사를 통해서 정보화 실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정의 컴퓨터의 보급률이 50% 정도에 달하고, 보유컴퓨터의 기종도 대부분 펜티엄급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컴퓨터는 다른 내구재와는 달리 그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위해 계속적인 추가비용이 든다. 또한 인터넷과 통신이용 증가는 가정의 통신비지출을 증가시킨다. 결국 이러한 컴퓨터 관련 비용의 증가는 가계지출에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

또한 정보화사회에서 지식은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고, 지식의 장악은 부의 새로운 근거로 미래의 권력 투쟁에서 핵심문제(Toffler, 1980)가 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정보화시대의 개인은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욕구가 증대하게 됨에 따라 교육과 교양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요구의 증대는 교육교양오락비의 지출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표 12〉 가정정보화관련 지출의 증가추이

	교육·교양오락비 비율	교통·통신비 비율
1980년	8.1%	5.8%
1985년	11.3%	6.5%
1990년	13.1%	8.5%
1995년	15.3%	11.3%
2000년 1/4분기	19.2%	15.4%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표 12〉를 통해서 가정정보화와 관련된 지출비목이라 할 수 있는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자. 우선 컴퓨터 구입 및 유지비용과 각종 정보관련 교육비용이 포함되는 교육·교양오락비의 비율이 1980년 8.1%에서 1995년 15.3%로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00년 1/4분기에는 19.2%에 도달할 정도로 점점 그 비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통신망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통신비도 1980년 5.8%에서 1995년 11.3%로, 2000년 1/4분기에는 15.4%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계 재정관리차원에서 볼 때, 가정내에서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을 활용함으로써 가계의 소비행동과 재정관리행동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이 용이해지면서 개개인의 재정관리능력도 예전에 비해 크게 향상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계의 전자상거래 이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보고는 없으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의 성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에서 국내 783개 기업, 8만8천여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올해 18조 6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84%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간(B2C) 시장은 지난해 2,464억원에서 올해 1조 1,396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360%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 같은 조사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최근 6개월간 215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난해 하반기의 91만명(전체인구의 3.3%)에 비

〈표 13〉 전자상거래 이용자, 이용회수, 구입금액

	1999년 하반기	2000년 상반기	성장률
이용자비율	3.3%	7.7%	
이용자수	91만명	214만명	135%
이용평균금액 (최근 6개월간)	22만원	34만원	54%
평균이용회수 (최근 6개월간)	2.82회	3.15회	
시장규모	2027억원	7360억원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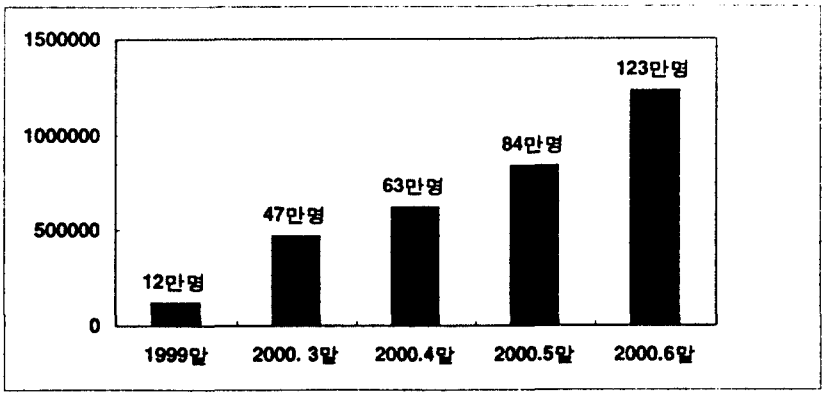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전자상거래조사통계보고서

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횟수, 이용금액도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최근 6개월간의 전자상거래 이용평균금액은 34만원, 평균이용회수는 3.15회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로는 시간절약(65.3%), 제품검색의 편리(52.5%)을 들었으며, 그 외에도 가격절약, 배달 등이 전자상거래의 장점이라 하였다.

KNP조사(2000)에서도 인터넷사용자의 구매행태에 대해 보고한 바 있는데, 응답자의 67%가 주당 1~3회 인터넷쇼핑사이트에 방문한다고 하였고, 주당 10회 이상 방문한다고 하는 사람도 5.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쇼핑사이트에 방문하는 목적은 주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5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구매경험은 65.9%로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인터넷 사용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인터넷 쇼핑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6개월간 구매제품으로는 책이나 잡지가 3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다음으로는 음악/영화 CD, 영화/공연 티켓, PC용품, 가전, 항공/철도, PC S/W, PC H/W, 화장품/향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뱅킹은 '99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2000년 6월말 현재 20개 국내은행중 18개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2000)에서 발표한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의하면 인터넷뱅킹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고객수는 1999년말 12만명이었던 것이 2000년 6월말 현재 123만명으로 급증하였다. 6개월만에 인터넷뱅킹 사용자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 3월말 47만명에 비하더라도 그 수가 161% 증가한 것이다(그림 7).

〈그림 7〉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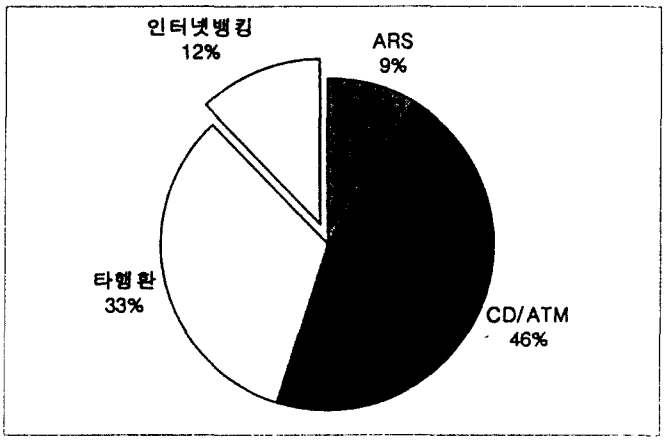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00),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현재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내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금융상품정보제공, 예금조회, 계좌이체 서비스 등과 같은 것이 있고, 대출, 예·적금계좌개설, 외화송금, 실시각 금융상담 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금융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일부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조회와 자금이체, 대출서비스 이용실적은 2000년 6월 현재 1,251만6천건으로 지난 3월의 485만5천건에 비해 159% 증가하였고, 인터넷 대출신청액수는 3월말 2만1천건에 1,769억원 규모였지만, 지난달에는 8만3천건에 7,188억원으로 늘어났다(한국은행, 2000).

인터넷뱅킹 이용실적의 증가속도는 과거 ARS, CD/ATM 및 타행환 이용실적의 증가세를 능가하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그래서 도입된 지 1년밖에 안된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이용실적이 ARS, CD/ATM 및 타행환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전자금융 이용실적(각종 조회 및 자금이체)중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8).

〈그림 8〉 조회 및 자금이체 건수 비중



자료: 한국은행(2000),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편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2000)의 『The Internet Life Report』에서는 인터넷이 사용자의 시야를 넓혀주고(78%), 여러 가지 생활대처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35%가 쇼핑능력이, 그리고 31%가 건강정보획득 능력이, 25%가 재정관리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앞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재정관리 측면에서 나타나는 가정정보화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정정보화로 가계소비지출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컴

퓨터 구입비용과 지속적인 유지비용, 그리고 인터넷통신망 사용비, 정보능력구비를 위한 교육비 등의 증가로 정보화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즉, 교통통신비, 교육·교양오락비 등의 지출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지출비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전반적인 가계소비지출구조가 변화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둘째, 가정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을 활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관리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인터넷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진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재정관리활동이 보다 폭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수준에서 재정관리에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재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터넷이 활용되리라 예측된다.

셋째, 인터넷을 통해서 재정관리를 위한 정보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재정관리능력이 향상되고 합리적인 구매의사결정이 용이해졌다. 즉,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고, 또 다른 상품과 다양하게 비교 탐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매의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2) 인적 하위체계의 측면 :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관계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로써 사회 내에서 용인되는 문화를 반영한 권력관계, 역할구조와 같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간의 사회적·정서적 구조인 개인적·심리적 관계를 포괄"(유영주, 1996)하게 된다. 즉, 역할구조나 권력구조, 그리고 가족원간의 갈등,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가정의 정보화가 가족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를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성역할관계, 권력구조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간 의사소통의 변화

인터넷사용으로 대표되는 가정정보화는 가족간 의사소통에 대해 두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인터넷사용이 가족원간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고 고립감을 증가시킨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성원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며 가족간 유대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 Carnergie Mellon 대학의 Kraut 등은 가정에서의 인터넷사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The HomeNet Project』를 수행하여 왔다. HomeNet Project의 일환으로 Kraut 등은 인터넷사용의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혼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인터넷의 이용이 많을수록 가족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고, 사회적인 참여정도도 감소하며, 우울증이나 고독감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 1998).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Stanford 대학의 계량사회학연구소(SIQSS)의 Norman & Lutz (2000)는 2,689가구의 4,11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활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넷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관계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예를들면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쓰는 사람 중 13%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8%는 사회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줄었고, 26%는 친구와의 대화나 가족과의 전화가 줄었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 활동이 많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2000)의 『The Internet Life Report』에서는 앞서 제시된 Kraut 등(1998)과 Norman 등(2000)와 반대로 인터넷이 사회적 고립화의 역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인터넷 사용자의 55%가 E-mail 교환으로 가족원간의 관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가족과 E-mail을 교환하는 사람들 중 59%가 E-mail 덕분에 가족원간 의사소통이 많아졌다고 한다. 가족간 E-mail을 교환하는 사람들의 31%가 E-mail로 솔직한 얘기나 언짢은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터넷과 이메일은 가족을 더 가깝게 해주고,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이로써 가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해주고, 보다 솔직한 얘기나 말하기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더 많다든지 하는 결과는 인터넷사용자사 사회적으로 더 활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인터넷은 사용자의 시야를 넓혀주고(78%), 여러 가지 생활대처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한다. 결국 인터넷은 사용자의 사회적 반경과 시야를 넓혀주고,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증가시켜주며, 각종 생활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조정문 외, 1999)도 가정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소원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예를들면, 인터넷이나 휴대

폰이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나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갈등해소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박부진 · 이해영(2000)은 인터넷이 가족문화에 상반되는 두가지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즉, 인터넷의 이용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성원과 동일 공간 내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외부집단과 연결됨으로써 각 가족성원들을 고립시키는가 하면, 다른 한편 가족성원 상호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도움을 줌으로써 가족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이중적 영향을 이 연구에서는 가족집단의 특성, 특히 가족집단이 갖는 의사소통의 원활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즉, 기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족성원간의 상호관계가 우호적인 경우 인터넷 이용은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기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가족에서는 오히려 인터넷 이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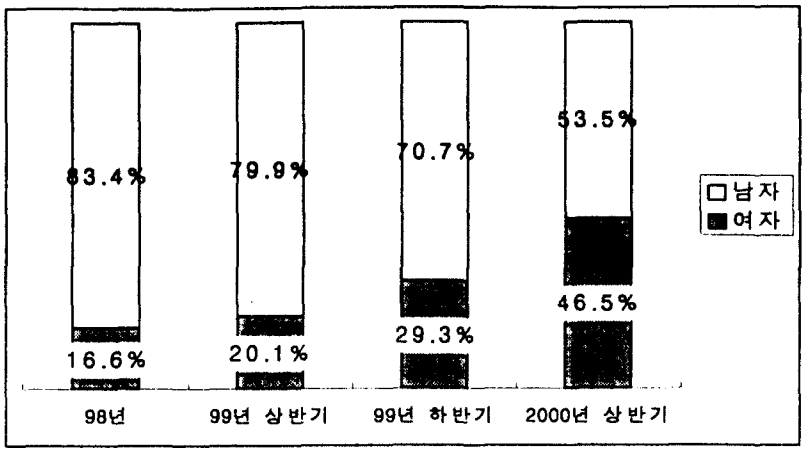
(2) 가족내 성역할관계의 변화

전통적으로 부부관계는 남편은 부인을 통제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구도였다. 이와같은 극히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경제적 생산능력을 인정받는 생산자로서의 남성과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는 소비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가치평가, 부계혈동의 사회적 원리에 따라 자녀에 대한 친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불평등한 친권행사, 외부사회에 대한 정보를 남성이 독점하는 불평등한 사회조직 등이 있다. 인터넷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부부 사이에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정보의 편중현상이 완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내에 존재하였던 성차별의식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박부진 · 이해영, 2000). Toffler(1980)도 정보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남성과 여성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조정문(1999)도 정보사회에서는 부부간 엄격한 역할구분이 약화되고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공유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실증연구를 한 결과, 정보화된 사람일수록 근대적인 성역할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물로 이용되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여성들의 인터넷사용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보공간에서의 성별격차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성별격차해소 현상은 가족내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9〉 성별 인터넷 이용자 비율



자료: KNP보고서(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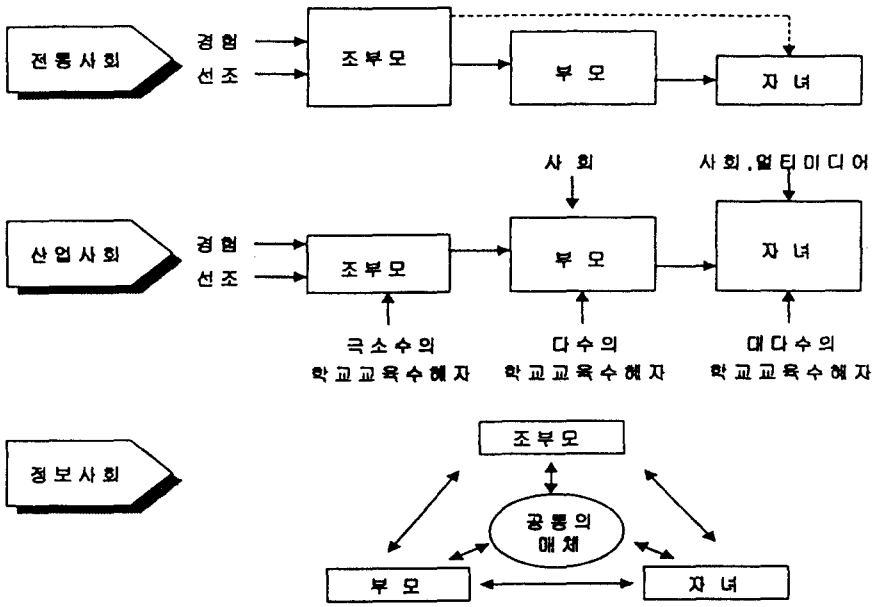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질서가 유지되는 한, 가정내 정보화수준 향상이 곧바로 전통적인 성역할분업의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가정정보화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직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성별분업과 가부장적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이중부담-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의 이중역할-이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3) 가족내 권위구조의 변화

전통적으로 한국가족이 외부사회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는 가장을 비롯한 윗세대 남성들을 통로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이용이 아랫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가족이 받아들이는 정보통로가 변화되었고, 모든 가족원이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족내 위계구조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박부진, 이해영, 2000).

김재은(1997)은 정보가 가족원에게 유입되는 경로에 근거하여 가족내 권위구조의 변화를 다음 〈그림 10〉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통사회나 산업사회에서의 가족내 정보의 흐름을 보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달되며 세대를 거치는 동안 정보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유통은 모든 가족원에게 그 통로가 개방되어 있고, 공통의 매체를 통해 3자간 상호유통도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가 공통 분배되는 상황에서 조부모나 부모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권위가 상실되고, 오히려 새로운 첨단정보를 많이 가진 자녀들이 보다 더 많은 권위를 소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즉, 가족내 정보불균형은 가족원간의 권위구조를 변화시키고 세대간 갈등과 소외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0〉 가족내 정보유통경로의 변화



자료: 김재은(1997), 정보화와 가족내 권위구조

박부진(1998)은 컴퓨터의 구입과 사용과정에서 자녀세대를 '기술-사도'로 부모세대를 '기술-바보'로 비유하면서 가족간 위계질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들은 컴퓨터를 구입해주는 데서 그들의 역할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컴퓨터에 관한 문외한이거나 '기술-바보'에 해당되며, 아랫세대인 자녀들은 가정에서 새로운 정보기기의 조작과 이용에 능숙한 '기술-사도'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술 -바보는 기술- 사도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세대와 연령, 성에 따라 구분되던 가족간의 위계질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라 재편된다.

이로 인해 가족의 전통적 위계구조가 와해되고, 또 가족간의 관계가 약화되며, 가족내 소외의식이 생성된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나, 이는 가족내 새로운 평등구조가 형성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도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가족관계 측면에서 나타나는 가정정보화의 영향은 가족간 의사소통의 변화와, 그리고 가족내 성역할관계의 변화, 가족내 권력구조의 변화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가정의 정보화가 가족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의 강화와 감소라는 상반된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한편에서는 가정정보화로 가족원간 의사소통이 감

소함으로써 고립감과 소외감이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정정보화로 가족성원간에 의사소통이 더 많아지고, 더 풍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가 강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째, 가정의 정보화로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관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물로 이용되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내 성별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가정의 정보화는 가족내 권력구조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위계구조는 정보기술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통로가 변화되었다. 모든 가족원이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족내 새로운 평등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첨단정보를 더 많이 소유한 자녀세대와 그렇지 못한 부모세대간의 또 다른 정보불평등, 세대간 정보격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Ⅳ. 결 론

- 가정정보화의 내실화 방안 -

국내 인터넷 사용자가 2000년 6월 현재 1575만명에 도달하고(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a), 또 가정에서의 이용률이 42.2%(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b)에 도달하는 등 그야말로 "인터넷의 생활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최근 인터넷PC의 공급과 주부인터넷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활용을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는 가정의 정보화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는 물론 가정생활에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두가지 하위체계-인적 하위체계, 관리적 하위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관리적 하위체계의 측면에서 시간관리와 재정관리의 변화를, 그리고 인적 하위체계의 측면에서는 가족관계나 역할의 변화를 진단해 보았다.

우선 가정정보화로 시간관리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①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과 같은 생리적 시간의 감소, ②TV시청이나 라디오청취, 신문구독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 소비하는 시간의 감소 ③새로운 가사노동 영역의 창출 및 영역별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 ④혼자

보내는 시간의 증가/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감소 등이 있다.

한편 가정정보화로 재정관리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①가계소비지출구조의 변화 ②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의 활용에 따른 재정관리행동의 변화 ③재정관리능력(정보탐색 능력)의 향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차원에서 나타나는 가정정보화의 영향은 ①가족간 의사소통의 양과 내용의 변화 ②전통적인 가족내 성역할 관계의 변화, ③가족내 세대간 권력구조의 변화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정정보화로 인한 가정생활의 변화에 근거하여 가정정보화 내실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가정정보화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가정정보화가 모든 가족원의 복지와 전반적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한다는 데 있다.

즉, 본 장에서는 가정의 정보화의 지향점을 가정내 모든 가족원의 생활의 질 향상에 두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정정보화의 파급효과를 모두 토대로 고도정보사회에 대비한 가정정보화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생활시간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시간관리교육

우선 시간차원에서 볼 때, 가정의 정보화는 컴퓨터의 오남용과 정보시간의 과다소비 등은 가족원들의 균형적 시간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가족원이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각각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 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화로 인해 새로운 활동이 생겨나 생활이 더욱 다양해면서, 하루 24시간동안 수행해야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시간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감안할 때, 정보사회에서 생활시간을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시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생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시간관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획득하게 되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 생활시간관리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학업 뿐 아니라 일상적인 다른 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생활시간관리능력의 부재에서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시간의 중요성과 시간관리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스스로 자신의 생활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균형적인 시간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동시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간관리 교육도 필요하다. 가정내에서 부모는 자녀의 교육주체이자 본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먼저 생활시간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고, 스스로도 균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직업인으로서 또는 주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시간사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간관리교육이 사회교육 차원에서 세분화된 대상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시간관리 교육은 1회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가정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택근무는 시간갈등과 역할갈등, 공간갈등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가정내에서 직업노동과 가사노동, 휴식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시간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공간적·시간적으로 직장과 가정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의 심화에 따라 커지게 되는 시간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여러 가지 역할을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관리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2.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접근의 제공

재정관리 차원에서 볼 때, 가정정보화로 가계소비지출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는데, 특히 컴퓨터 구입비용과 지속적인 유지비용, 그리고 인터넷통신망 사용비, 정보능력구비를 위한 교육비 등 정보화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제 필수적인 생활수단으로서, 업무나 학업, 자녀교육, 가사노동, 여가 등 모든 생활에 물적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정내 PC보급률과 인터넷이용률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관련 비용이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비목으로 간주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계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아직까지 모든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정의 정보화가 고도정보사회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발판이 된다고 할 때, 모든 가정에서 정보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회구성원 누구나가 차별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와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을 보장하는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7)는 견해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단말기의 보급확대와 공공정보네트워크(public information network)의 운영, 정보통신이용을 위한 공공접근장소(public access point)의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전자상거래와 인터넷뱅킹을 중심으로 가정의 재정관리행태가 변화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은 모두 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가정의 재정적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인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공공적 서비스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접근의 개념에서 정보화사회에서 가계 재정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적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겠다.

3. 정보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가족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 가정정보화는 가족의 의사소통과 성역할관계,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의 의사소통에 대한 영향은 의사소통의 강화와 감소라는 두가지 상반된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는 가족원의 정보화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견해가 있다. 즉, 부모가 정보통신기술을 잘 사용하는 경우 가족내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반면 부모가 잘 사용하기 못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모든 가족원이 함께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때, 가정정보화가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내 권력구조가 위에서 아래로의 전통적 권력구조에서 새로운 평등적 구조 또는 아래에서 위로의 새로운 권력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즉, 정보전달이 예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다가, 정보화사회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변화함에 따라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많은 첨단정보를 가지게 되고, 이로써 자녀들이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전현상은 첨단정보를 더 많이 소유한 자녀세대와 그렇지 못한 부모세대간의 또 다른 정보불평등, 세대간 정보격차의 문제로 격화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가정의 정보화가 진정 모든 가족원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내 모든 가족원이 기본적인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를 함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가족원간 정보격차문제, 정보불평등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정보리터러시'는 단순히 컴퓨터나 정보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탐색력, 정보분석력, 정보종합력, 정보표현력, 정보제시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정보화사회를 살아나가는 생활인의 기본적인 생활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규범과 윤리에 대한 교육은 '정보리터러시'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정보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족내 정보격차는 성별, 세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정보화교육도 성별, 세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성별, 세대별로 다양하게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주부인터넷교육이나 노인정보화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더욱 세분화된 대상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가정정보화의 내실화방안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방안은 앞서 지적한 가정정보화의 파급효과를 토대로 추출한 것으로, ①시간관리 차원에서 '생활시간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시간관리교육'을, ②재정관리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접근의 제공'을 ③가족관계 차원에서 '정보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정보화의 실태와 가정정보화의 파급효과(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정정보화의 내실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고도정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진정으로 가정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정보화의 토대 구축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Bell, D. (1987). The Social Framework of the information Society. Combridge Mass. The MIT Press. 이동만 역(1990). 정보화사회의 사회적 구조. 한울.

Deacon, R. E. & Firebug,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th ed. Allyn & Bacon Inc., Boston

Gross, I. H., Crandall, E. W.,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rdern Families. 4th ed.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Kraut, R.,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1997). Why People Use Internet. (http://homenet.hcii.cs.cmu.edu/progress/purpose.html)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3. No.9 (http://www.apa.org/ journals/amp/amp5391017.html).

Naisbitt, J.(1982). Megatrends. New York. Warner Books. 박재두 역(1985). 탈산업사회의 새조류. 법문사.

Schiller, H.(1984). Information and the crisis economy. Norwood : Ablex. 강현두 역 (1990). 현대 자본주의와 정보지배논리. 나남.

SIQSS(2000). Norman, H. Nie, Lutz Erbring. Study offers Early Look at How Internet is Changing Daily Life.(http://www.stanford.edu/group/siqss/press__ release/press__release.html).

The Pew Internet & America Life Project(2000) "Tracking online Life: How Women Use the Internet to Cultivat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http://www.internetmetrix.com/htm/product/census2.htm).

Toffler, Alvin(1980).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이규행 감역(1989). 제 3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사

공선진 · 강선미 (1996). 정보사회와 여성의 생활세계. 포럼21. 한백연구재단.

김문조(1998). 정보화와 여성의 지위변화. 아시아여성연구 37('98. 12).

김문조 (1999). 과학기술과 한국사회의 미래.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성희(1996). 가정기기도입에 따른 가사노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미(1999). 가정정보화와 사이버가족. 『정보혁명. 생활혁명. 의식혁명』 LG커뮤니 카토

피아연구소. 백산서당

김재은(1997). 정보화와 가족내 권위구조.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외숙 · 두경자 · 조희금(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박부진(1998). 정보화사회의 가족관계 -위계구조의 변화와 적응. 서울대인류학연구회.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박부진 · 이해영(2000). 인터넷의 생활화와 가족문화의 변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유영주(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윤정로(1999). 한국의 정보화와 전업주부. 정보화저널 6권 2호.

인터넷메트릭스(1999). 제2차 인터넷 센서스 조사.

임회섭(1995). 정보화사회의 사회구조. 최정호 외. 『정보화사회와 우리』. 소화.

이재경(1992). 가정정보화와 성별분업. 여성학논집. 제9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0). 전자상거래조사통계보고서.

조명환(1993).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조명환(1994). 정보화 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2. 서울대학교.

조은(1998).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정보화로 가는길 '98. 5.

조정문 외(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집.

조형(1992). 정보사회와 여성의 일-가정정보화를 중심으로. 통신개발연구원.

채옥희(1999). 가정정보화와 가정관리학의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최동수(1999). 정보사회의 이해. 법문사.

최두진(1998). 선진국의 가정정보화 동향. 정보화로 가는길 '98. 5.

통계청 도시가계연보(1981, 1989, 1990, 1996, 1998).

한국은행(2000).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a). 인터넷이용자수(http://stat.nic.or.kr/public_html/iuser.html).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b). 2000년도 상반기 설문조사 실시결과. (http://stat.nic.or.kr/public_html/allym/statistics.html).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c). 국내 인터넷이용자수 급증요인 분석. (http://stat.nic.or.kr/public_html/allym/research1.html)

한국전산원(1996). 정보화와 삶의 질.

한국전산원(1999). 정보화통계집.

한국정보문화센터(1997). 정보화의 지형변화와 정보문화확산의 새로운 전개방향.

한국정보문화센터(1998). 국민정보화인식 및 정보생활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1998). PC통신 이용실태 및 이용자 만족에 관한 조사.

한국정보문화센터(1999).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KNP(1999). 1999 Spring KNP보고서(http://knp.adic.co.kr/).

KNP(2000). 2000 Spring KNP보고서(http://knp.adic.co.kr/).

LG 카뮤니카토피아연구소(1999). 정보혁명 생활혁명 의식혁명. 백산서당.

宮田加久子 著(1994). 電子メディア 社會. 東京. 誠信書房. 한국정보문화센터 역. 전자미디어 사회 :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사회심리.

木村靜枝 外(1994). 情報社會と生活經營. 東京. 酒井書店.

村尾勇之(1997). 生活經營學. 東京. 家庭教育社.

日本郵政省(1997). 通信白書. 日本大藏省印刷局.

〈토 론〉

가정정보화가 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이 승 미(우석대학교 가정복지전공)

80년대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있어 꾸준히 정보화사회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으며, 2000년대를 맞는 현재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정보화사회의 커다란 물줄기를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음을 실감하고 있다.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산업, 전자상거래와 각종 통신기기의 발달 등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러나 '가정정보화가 가정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한 앞서의 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화의 논의에서 일찍이 가정은 정보화의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가정의 정보화는 여성, 특히 전업주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희망적 예측이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 가정정보화가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 지금까지의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폭넓게 소개하고, 가정자원관리적 관점에서 정보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두 하위체계에 근거하여 그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조망한 점에서 앞서의 논의는 매우 시의 적절하고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이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측면을 간략히 언급함으로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앞서의 논의에서는 정보화가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 중 시간관리, 재정관리, 가족관계 및 역할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그 변화의 방향과 가능성에 관해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화사회를 자본주의사회의 연장선 속에서 보거나 보다 근원적인 생산체제의 변화로 보던 간에 이러한 관점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 중의 하나로 소호나 재택근무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소호나 재택근무의 확대는 가사노동의 일차적인 전담자인 여성의 취업기회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남녀간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의 역할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이에 관한 연구가 현재 가정자원관리분야에서도 이루어지

고 있으며, 본 논의에서도 언급은 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생산방식의 변화가 남녀간의 역할관계, 이에 따른 개인의 시간배분문제, 가족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보화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보, 곧 지식이 권력의 핵심요소가 된다면 정보의 확대를 위한 공공적 노력, 정보의 독점과 왜곡문제, 무방비로 노출된 정보에 대한 통제, 이들 간의 균형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앞서의 논의에서도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접근을 위한 공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건들이 일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보도에서 나타나듯이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예를 들면 올바른 정보의 사용법과 네티즌사회에서의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문제 등 정보사용의 윤리성과 관련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성인에 비해 정보화의 흐름을 더 빨리 접하고 익숙하게 되는 어린 아동과 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앞서의 논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은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고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재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가족내 구성원간의 정보력의 평등화로 인간관계가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가정내 개인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남녀간의 역할불균형을 더욱 심화할 부정적인 가능성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과 같이 정보제공자 위주로, 이를 상품화하는 생산자 위주로 정보화가 주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가 촉발할 수 있는 다양한 잠재력 중에서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정보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평등과 민주성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 이와 같은 잠재력이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구조가 이에 맞는 변화를 수반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발전에 따라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변화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리고 그들간의 관계에, 더 나아가 내부적인 사고와 생활양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화에 따른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장치와 세부적인 노력 -예를 들면 가정내에서의 정보사용에 관한 교육, 가치관 교육 등- 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